

나주시, 합계출산율 3년 연속 증가... 출생 친화 도시 '주목'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도 증가... 인구 활력 회복 신호 전국 평균 크게 웃돌면서 전남 시(市) 단위 상위권 유지 임신 준비부터 양육까지 전 과정 맞춤형 지원 정책 효과

전남 나주시가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모두 증가하는 흐름을 보이며 출생 친화 도시로서의 인구 활력 회복 신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는 2025년 합계출산율이 1.17을 기록하며 2022년 이후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국가데이터처가 최근 발표한 '2025년 출생통계(잠정)' 결과에 따르면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1.17로 전국 평균 0.8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나주시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27 → 2023년 1.086 → 2024년 1.16 → 2025년 1.17로 꾸준한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인 15세부터 49세까지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지표로 지역의 출산 환경과 인구 구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구 지표다.

나주시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전라남도 시(市) 단위 합계출산율 1위를 기록했으며 2025년에도 도내 시(市) 단위 2위를 기록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합계출산율 증가와 함께 실제 출생아 수 또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나주시 출생아 수는 2022년 680명에서 2023년 735명, 2024년 788명, 2025년 791명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임신부 등록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 2025년에는 역대 최대인 843명을 기록해 향후 출생아 수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을 보인다.

시는 이러한 증가세가 임신 준비 단계부터 출산, 양육까지 이어지는 체계형 출생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나주시는 난임 치료 지원, 가임기 여성



산전검사,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을 통해 건강한 임신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임신부 가사돌봄 서비스와 임신부 영양제 지원, 임신부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출산 이후 단계에서는 부모들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출산 이후에는 출산장려금 확대와 학령기까지 지급되는 출생기본소득,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공공산후조리원 4

호점 운영, 행복담은 출산축하꾸러미 지원 등을 통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 임신부 등록 수가 함께 증가한 것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출생지원 정책의 성과가 반영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임신 준비부터 출산과 양육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나주/이명열 기자



귀농의 첫걸음을 강진에서 설계하세요

체류형귀농사관학교 8기 입학, 11월까지 교육 본격 운영

강진군이 지난 4일 체류형귀농사관학교 대강당에서 제8기 입학간담회와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농촌 정착 교육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각지에서 강진으로 새로운 삶을 꿈꾸며 모인 교육생들이 참석해 농촌에서의 미래를 설계하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체류형귀농사관학교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민에게 일정 기간 체류 공간을 제공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강진군은 2019년 폐교를 리모델링해 해당 시설을 조성했으며, 농촌 생활을 직접 경험하며 정착을 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 제8기 교육 과정에는 8세대 12명이 입학했다.

특히 농업은 새로운 인생의 방향으로 선택한 젊은 청년층의 참여가 두드러져 눈길을 끈다.

젊은 청년부부가 어린 자녀와 함께 입소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 귀농 세대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가족과

함께 농촌에서 미래를 준비하려는 젊은 세대의 도전은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교육생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9개월 동안 기초 영농기술 교육을 비롯해 작목 선택을 위한 탐색 교육,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용화 교육, 지역민과의 교류 활동, 신진 농가 견학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은 농업 기술 습득은 물론 농촌 공동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강진군은 교육생들이 단순히 농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일자리와 창업 기회를 탐색할 수 있도록 취업·창업 상담과 연계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주거와 정착을 위한 정책 안내를 병행해 실제 정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농업뿐 아니라 지역에서 새로운 생업을 찾고 싶은 젊은 세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도시에서의 삶을 뒤로하고 가족과

강진/손경설 기자

순천시가 최근 국가유산청 주관 '2025년 세계유산축전' 성과평가에서 전국 4개 개최지 중 종합 1위를 차지하며 세계유산 도시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했다.

이번 평가는 전문가 심사, 관람객 만족도, 행정 실적을 종합해 실시됐으며, 순천시는 합산 점수 85.13점으로 종합 1위를 기록했다. 특히 문화유산(선암사)과 자연유산(순천갯벌)을 잇는 독창적인 콘텐츠

순천시, 2025년 세계유산축전 성과평가 '전국 1위' 쾌거

전국 4개 개최지 중 종합점수 1위, 세계유산 도시 위상 입증

구성과 안정적인 운영 체계가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9월 열린 22일간의 축전 기간 중 약 13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이를 통해 약 143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6억 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를 거두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시 관계자는 "전국 개최지 중 종합 1위를 차지한 것은 순천의 유산 가치를 아끼고 함께해주시 시민들의 자부심이 만든

결실"이라며,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글로벌 마케팅을 강화해 세계유산축전을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순천만의 독보적인 문화 브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번 평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축전의 성과가 지역 사회에 지속적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차기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순천/정성인 기자

영암군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삼호보건지소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 쉽터 '청춘학당', 인지 강화 교실 '청춘플러스'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한다.

청춘학당은 경증 치매환자에게 다양한 인지 자극과 신체활동, 정서 안정과 사회 교류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달 17일부터 운영된다.

영암군치매안심센터, 청춘학당·청춘플러스 참여자 모집

경증 치매환자 청춘학당, 인지 저하 어르신 등 청춘플러스서 지원

청춘플러스는 치매 선별검사 결과 인지 저하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최종 진단받은 어르신에게 기억력 향상, 다양한 인지 강화 훈련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같은

달 19일부터 매주 목요일 진행된다. 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이나 그 가족은 영암군치매안심센터(061-470-6669, 061-470-6031)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희숙 영암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으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도움을 주겠다.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영암/김희선 기자

전남 합평군은 "오는 10월까지 나산면 노인복지회관에서 나산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배후마을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은 ▲점배교실 ▲줌바댄스 ▲요가 ▲라탄공예 ▲쿠킹 클래스 ▲몽

합평군 나산면,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건강 분야 13개 과정... 교류 확대·공동체 활력 기대

땅구리 협장단 등 총 13개 과정으로 구성됐다. 문화·여가·건강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마련해 여러 연령대의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군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이 함께 배우고 즐기며 자

연스럽게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합평군 관계자는 "이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와 여가를 즐기며 활기찬 공동체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합평군은 나산면에 2027년까지 총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 세대공감복지센터를 조성하는 등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과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나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합평/전광춘 기자

고흥군 거금도 햇양파, '오아시스' 전국매장 첫 출하

3월 6일 거금도농협서 상차식... 고흥산 햇양파 본격 유통 시작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6일 거금도농협에서 '거금도 햇양파 프리미엄 마켓 오아시스 전국 매장 첫 출하 상차식'을 개최하고, 고흥산 햇양파의 본격적인 전국 유통을 시작했다

이날 상차식은 거금도에서 생산된 햇양파를 친환경 프리미엄 식품 유통기업 오아시스(OASIS) 전국 매장으로 처음 출하하는 자리로, 고흥군과 거금도농협, 유통 관계자 등이 참석해 고흥 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기원했다.

거금도 햇양파는 따뜻한 해양성 기후와 비옥한 토양에서 재배돼 아삭한 식감과 단맛이 뛰어나며 저장성이 좋아 소비

자들로부터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고흥 대표 농산물이다.

고흥군 직영 온라인 쇼핑몰 '고흥몰'과 (주)오아시스의 협업으로 거금도 햇양파가 프리미엄 유통망을 통해 전국 매장에 공급되면서 지역 농산물의 판로 다변화와 농가 소득 안정에 기여하는 상생형 유통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고흥물 관계자는 "거금도 햇양파가 프리미엄 유통 채널을 통해 전국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게 돼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유통 협력을 통해 고흥 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박도일 기자

